

# 2000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김재영/국토연구원 건설경제 연구실장

## [1] 국내외 경제여건

전년 동기대비 산업생산증가율은 2000년 1/4분기 23.5%였으나 2/4분기인 4~5월에는 약 18.5%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경기선행지수 또한 1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내수를 주도하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관련 지표들 또한 금년 4~5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향후의 소비계획을 반영하는 소비자기대지수는 금년 1월 106.5에서 5월 101.9까지 하락하고 있다.

금년 2/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월대비로는 최근들어 원유가격, 서비스가격 등을 중심으로 다소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용과 임금은 그동안 경기회복에 따라 금년 1~4월 중 평균임금은 전년 동기대비 9.5% 상승하였으며 실업률(계정조정)은 금년 5월 현재 3.9%까지 하락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은 모두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수입은 4월 이후 급등세를 벗어나 점차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상반기에 50억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활동은 6월 중 생산, 수출출하, 평균가동률 등 실물경제지표는 비교적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생산은 자동차음향통신기기 등의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반도체의 수출호조로 17.9% 증가하였다.

6월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반도체 생산증가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5월(80.1%)보다 1.8P 높은 81.9%를 나타냈다. 6월중 가동률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3.2% 증가, 전월비는 2.2% 증가하였다. 전년동월비는 기계장비, 반도체, 조립금속, 제1차 금속 등이 증가하였고 전월비로는 반도체, 조립금속, 음식료품, 화학제품 등이 증가하였다. 생산능력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4% 증가, 전월비 1.6% 증가하였다.

수출하는 반도체, 사무회계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27.8%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출하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도소매판매는 도매업, 자동차의 판매둔화로 11.1% 증가

하여 완만한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컴퓨터에 대한 투자의 증가폭 둔화로 26.1% 증가하여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6월중 동행종합지수는 10개 구성지표 중 시멘트소비량, 생산자출하지수 등 7개 지표가 평균증감률을 상회하여 전월보다 0.8% 상승하였다.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3%을 보여 전월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하였다.

6월 중 선행종합지수는 건축허가면적, 내구소비재 출하지수 등 6개 지표가 평균증감률을 하회하여 전월보다 0.2% 감소하였다.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8%로 전월에 비해 1.8%P 낮아짐에 따라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5월부터 감소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의 경제여건은 금융 및 기업부실 등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상반기보다는 다소 불안요인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장률은 하반기 중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증가세의 둔화에 따라서 상반기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연간으로 8.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매매 가격은 1/4분기에는 소폭의 상승을 보였으나 2/4분기에 들어서는 소폭의 하락을 보이

고 있다. 전국의 주택매매 가격은 6월말 현재 전월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다.

전세가격도 5월까지의 전월에 비해 상승을 하였으나 6월 들어서는 전월에 비해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전세가격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모두 전월에 비해 약 0.2% 하락하였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4월 현재 6만4천호의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같은 부동산시장 동향

을 통해 볼 때 부동산가격은 매우 안정적이며 미분양주택도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3] 건설기성액 · 국내건설수주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발주가 증가로 전환되고 민간주택 발주증가세가 지속되어 44.3% 증가하여 급년들어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6월중 건설기성액은 민간부문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수준이 높았던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1.8% 감소, 2/4분기로는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6월중 국내건설수주는 공공부문에서 도로·교량 발주가 증가한 데에 기인하여 증가로 돌아서고, 민간부문에서도 주택발주 증가가 계속되어 전년동월 대비 44.3% 증가, 2/4분기로는 20.4%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은 작년 6월 이후 발주부진을 보인 도로·교량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 건축(터미널 공사 등), 주택 등의 발주도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48.4% 증가, 2/4분기로는 17.8% 감소하였다.

민간부문은 대규모 신규주택 발

<표 1>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전월대비 증감률 단위 :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주택매매가격	2.0	△12.4	△0.2	0.3	0.4	0.4	0.1	△0.1	△0.3
(서울지역APT)	5.2	△14.6	0.5	1.1	1.5	0.9	0.0	△0.1	0.0
전세가격	0.8	△18.4	△0.1	1.3	2.9	2.3	1.3	0.1	△0.2
(서울지역APT)	△1.5	△22.4	△0.6	1.5	4.3	2.6	1.4	0.3	△0.2
미분양APT(만호)	8.9	10.6	7.1	6.6	6.4	6.4	6.2	-	-

자료 : 주택은행

주 : 연간증가율은 각 년도 12월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표 2> 2000년 상반기 건설기성 및 수주동향

(단위 : 십억원, %)

구 분	1999			2000					
	2/4	상반기	6	2/4	상반기	5	6		
	동기비	동기비	동월비	동기비	동기비	동월비	금액	동월비	
건설기성	3.8	1.6	7.4	-2.4	-4.1	1.1	4,411	-1.8	
건설수주	27.1	-13.6	-6.2	20.4	40.2	18.8	5,405	44.3	
발주자별	공공	-12.6	-35.4	-61.5	-17.8	-4.4	-48.8	1,415	48.4
	민자유치	-	-29.0	-	-95.4	-26.2	69.8	-	-
	민간	65.7	13.3	80.1	50.9	75.0	79.9	3,990	46.7
공종별	건축	10.5	10.5	55.4	43.0	68.1	80.3	3,784	40.1
	주택	19.7	19.7	77.3	44.3	83.1	78.2	3,310	48.1
	토목	-35.2	-35.2	-53.9	-16.5	0.1	-53.8	1,618	55.9

자료 : 통계청

주가 크게 증가하고 기계설치, 상·하수도 발주도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46.7% 증가, 2/4분기로는 50.9% 증가하였다.

**[4] 건축허가**

경기회복에 따른 건축수요의 증가와 1998년의 건축허가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반등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축허가의 증가세가 상반기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월별로 볼 때 5월에는 건축허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이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는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준농림제도가 크게 바뀔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거용 건축허가가 감소추세로 전환하였고 공장건축총량제의 실시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공업용 건축허가가 억제되면서 건축허가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하반기의 건축허가는 전년동반기 대비 22.5% 수준의 증가에 그칠 것이며 용도별로 주거용은 23.8%, 비주거용은 20.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건축허가는 2000년 초의 예측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낮아질 것이나 그래도 34.3% 수준의 높은 증가를 보일 것이며 용도별로 주거용은 27.9%, 비주거용은 44.6% 수준의 증가를 보일 것으

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총 건축허가면적은 9천7백42만㎡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 건축수요 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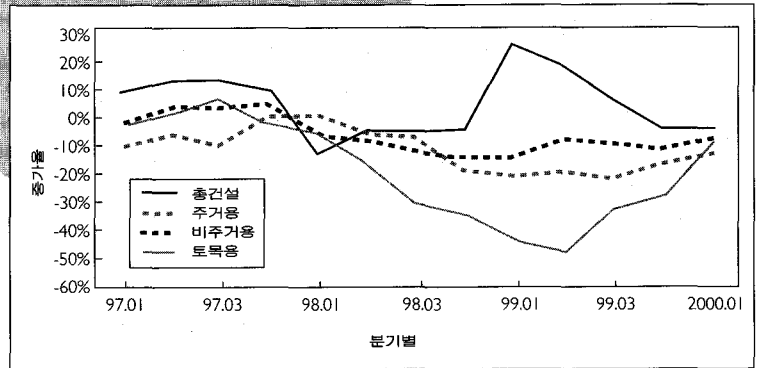
수도권지역의 난개발이 문제화되자 준농림지역에서의 건축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건축수요 억제요인이 발생하여 건축허가의 증가세가 2000년 상반기 5월에 들어서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에 따라서 공업용 건축수요가 크게 증가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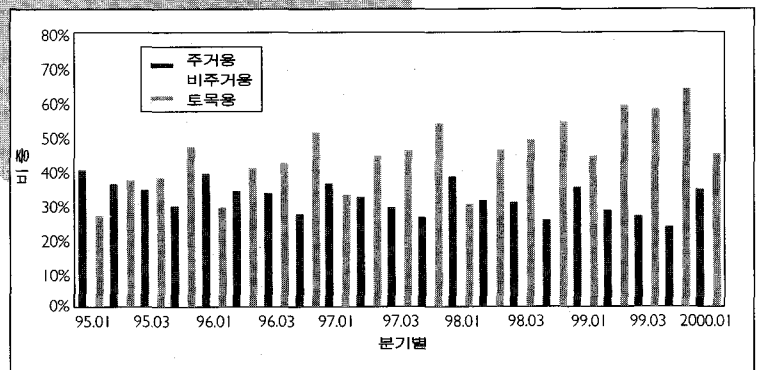
으나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공업용 건축수요가 건축허가로 시현되지 못하여 비주거용 건축허가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의 건축허가는 4월까지의 가파른 증가세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경제여건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제도적 요인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축수요의 증가요인이 크게 감소하여 건축허가의 급증가세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최근의 건축투자 동향



〈그림 2〉 건축투자의 부문별 비중의 변화



**2) 2000년 상반기 건축허가 추이 전망**

건축허가는 1999년 하반기 이후 1998년도의 건축허가 면적이 급감함에 따른 반등세와 경기회복에 따른 건축수요의 증가로 가파른 증가세가 2000년 4월까지 이어왔다. 특히 주거용 및 공업용 건축활동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상업용 건축허가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 4월 이후 5월까지 이어지는 급격한 증가세는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하반기에 들어서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2000년 하반기 건축허가 전망**

2000년 하반기의 건축허가는 전년 동반기 대비 22.5% 증가한 5천778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상반기에 비해 약 1천815만㎡ 증가한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주택 건축허가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할 경우 주거용 건축허가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거용은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허가의 급증으로 하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0.1% 증가하여 1천983만㎡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상반기에 비해 72만㎡가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수요의 상당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건축관련규제강화의 영향이

가시화될 경우 비주거용 건축허가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용도별로 하반기에도 상업용 건축허가가 비주거용 건축수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공업용 건축허가는 제도적 요인과 1999년 하반기에 급증세에 따른 상대적인 증가세의 둔화로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하반기 상업용 건축허가는 전년 동기에 비해 33.2%, 공업용 건축허가는 5.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간 건축허가는 2000년 초의 예측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낮아질 것이나 그래도 34.3% 수준의 높은 증가를 보일 것이며 용도별로 주거용은 27.9%, 비주거용은 44.6% 수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총 건축허가면적은 9천7백42만㎡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에 비해 약 1천488만㎡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건축관련 제도적 규제의 충격과 하반기의 경제여건의 불안정성 증대의 영향이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전망한 것으로 제도적 규제의 충격과 경제여건의 불안정성 영향이 클 경우에는 건축허가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건설투자**

총 건설투자는 1999년에도 1998년에 이어 10.3% 감소하였

다. 1999년은 정부가 건설경기부양을 위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토목용 건설투자는 8.3% 증가하였으나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 들어서 정부가 재정적자의 부담으로 토목용 건설투자를 억제하고 있지만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공공사를 조기 발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1999년 4/4분기 실적을 감안하여 예측하였을 때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건축투자는 선행 건축경기지표인 건축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4분기에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건축경기는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선행지표인 건축허가가 건설투자로 나타나는 시차가 다소 길어지고 있고 부동산경기의 회복을 기대하여 건축허가를 미리 받은 일종의 거품수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허가의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민간건설투자는 다소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0년 하반기의 건설투자는 전년 동반기대비 6.9% 수준의 증가에 그칠 것이며 용도별로 주거용은 10.9%, 비주거용은 9.5% 토목용 건설투자는 4.7% 수준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0년 총 건설투자는 1/4분기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당초의 전망보다는 다소 낮은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용도별로 주거용 건설투자는 5.2%,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목용 건설투자는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건설투자 동태

1999년은 정부가 IMF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경비부양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증가시켰고 2000년에도 그와 같은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 이와 같은 기조가 다소

변화함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토목용 건설투자의 증가폭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한편 민간건설투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행활동인 건축허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금융여건의 악화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증가폭이 건설경기회복을 주도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민간부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여건 특히, 금융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건축투자로 이어지는 시차는 과거보다 커서 건축허가의 증가세가 즉시 건축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축경기의 선행지표인 1999년 건축허가의 증가폭보다 2000년의 건설투자의 증가폭이 낮을 것이다. 한편 2000년도에 비록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여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투자는 1999년보다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투자의 부문별 비중은 IMF 이후 공공건설투자의 주축을 이루는 토목용 건설투자의 비중이 전체 건설투자에서 50~60%라는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건설투자의 주축을 이루는 건축투자의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공건설투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

〈표 3〉 2000년 하반기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십억원·1995년 불변가격), (증감률 : %)

구분	총건설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1999	1/4 (증감률)	14,355.2 -13.6%	5,018.9 -20.2%	3,145.0 -41.5%	6,191.3 25.1%
	2/4 (증감률)	18,872.7 -8.5%	5,267.4 -18.5%	2,475.0 -47.5%	11,130.3 17.9%
	상반기 (증감률)	33,227.9 -10.8%	10,286.3 -19.4%	5,620.0 -44.3%	17,321.6 20.4%
	3/4 (증감률)	18,303.6 -9.8%	4,858.7 -21.1%	2,774.9 -32.9%	10,669.9 6.8%
	4/4 (증감률)	20,456.2 -10.2%	4,716.0 -16.3%	2,612.8 -26.8%	13,127.4 -3.3%
	하반기 (증감률)	38,759.8 -10.0%	9,574.8 -18.8%	5,387.7 -30.1%	23,797.3 1.0%
	연간 (증감률)	71,987.8 -10.3%	19,861.1 -19.1%	11,007.7 -38.1%	41,119.0 8.3%
	2000	1/4 (증감률)	13,349.8 -7.0%	4,449.8 -11.3%	2,906.4 -7.6%
2/4 (증감률)		20,035.7 6.2%	5,820.5 10.5%	2,829.0 14.3%	11,386.3 2.3%
상반기 (증감률)		33,385.5 0.5%	10,270.3 -0.2%	5,735.3 2.1%	17,379.9 0.3%
3/4 (증감률)		19,903.7 8.7%	5,470.9 12.6%	3,005.2 8.3%	11,427.5 7.1%
4/4 (증감률)		21,537.2 5.3%	5,149.9 9.2%	2,892.3 10.7%	13,495.0 2.8%
하반기 (증감률)		41,411 6.9%	10,621 10.9%	5,898 9.5%	24,992 4.7%
연간 (증감률)		74,826 3.9%	20,891 5.2%	11,633 5.7%	42,302 2.9%

주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0년 1/4분기까지의 건설투자를 토대로 예측한 것임

는 것으로 당분간은 이같은 추이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공공건설투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향후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건설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2) 2000년 하반기 전망

최근에 건설경기 부양책 등으로 토목용 건설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대와 달리 2000년 1/4분기의 토목용 건설투자는 1999년 4/4분기에 이

어 [마이너스]를 시현하였다. 또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설투자도 가시적으로 회복하지 못해서 1/4분기의 건설투자가 7.1% 감소하였다. 그러나 선행지표의 동향과 과거의 건설투자의 동태를 감안할 때 2/4분기부터 건설투자는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

<표 4> 2000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단위 : 1,000㎡)

구분	주거용	비주거용					총건축	
		소계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1999	1/4 (증감률)	5,098.1 -55.0%	4,439.0 -29.4%	1,914.2 -39.8%	932.6 24.1%	831.6 -34.7%	760.5 -29.7%	9,537.1 -45.6%
	2/4 (증감률)	8,843.9 16.0%	6,975.7 31.5%	2,822.6 7.4%	1,867.0 177.1%	1,412.3 33.1%	873.7 -7.0%	15,819.6 22.4%
	상반기 (증감률)	13,942.0 -26.4%	11,414.7 -1.5%	4,736.8 -18.5%	2,799.6 96.4%	2,243.9 -3.8%	1,634.3 -19.2%	25,356.7 -17.0%
	3/4 (증감률)	8,740.6 -82.7%	7,084.9 69.6%	2,880.4 90.9%	2,476.1 276.8%	1,453.6 59.7%	951.3 -13.7%	15,825.5 76.6%
	4/4 (증감률)	21,922.6 195.3%	9,428.1 133.3%	4,127.5 187.9%	2,773.6 288.6%	1,118.7 51.5%	1,408.4 22.0%	31,350.7 173.5%
	하반기 (증감률)	30,633.1 151.2%	16,513.0 100.9%	7,007.9 138.1%	5,249.7 282.9%	2,572.3 56.0%	2,359.7 4.6%	47,176.1 131.0%
	연간 (증감률)	44,605.1 43.2%	27,927.7 41.0%	11,744.8 34.2%	8,049.3 187.9%	4,816.2 20.9%	3,994.0 -6.6%	72,532.8 42.3%
	2000	1/4 (증감률)	8,786.4 72.3%	9,393.3 111.6%	4,011.2 109.5%	3,415.6 266.2%	1,225.7 47.4%	740.7 -2.6%
2/4 (증감률)		10,296.8 16.4%	11,157.6 59.9%	5,393.2 91.1%	3,417.4 83.0%	1,451.3 2.8%	895.7 2.5%	21,454.4 35.6%
상반기 (증감률)		19,083.2 36.9%	20,550.9 80.0%	9,404.4 98.5%	6,833.0 144.1%	2,833.0 19.3%	1,636.5 0.1%	39,634.0 56.3%
3/4 (증감률)		10,326.7 18.1%	8,654.0 22.1%	3,980.7 38.2%	2,510.3 1.4%	1,207.4 -16.9%	955.6 0.5%	18,980.7 19.9%
4/4 (증감률)		27,624.5 26.0%	11,177.2 18.6%	5,354.0 29.7%	3,004.8 8.3%	1,216.0 8.7%	1,216.1 13.8%	38,801.7 23.8%
하반기 (증감률)		37,951.2 23.8%	19,831.2 20.1%	9,334.7 33.2%	5,515.1 5.1%	2,423.4 -5.8%	2,558.1 8.4%	57,782.4 22.5%
연간 (증감률)		57,034.4 27.9%	40,382.1 44.6%	18,739.1 59.6%	12,348.1 53.4%	5,100.4 5.9%	4,194.5 5.0%	97,416.4 34.3%

주 : 건설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2000년 6월까지의 건축허가를 토대로 예측한 것임

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의 건설투자는 상반기보다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총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도별로 주거용 건설투자는 1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토목용 건설투자는 4.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간 총 건설투자는 상반기 부진의 영향으로 3.9%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용도별로 토목용 건설투자는 1999년보다는 다소 부진해져서 2.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투자도 선행활동인 건축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1999년 대비 5.2%,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6] 건설인력

건설인력 수요는 실질 건설투자에 의해 발생하는 유발 수요로서 건설투자 증가세의 둔화로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에는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하여 건설인력 수요도 기대보다는 낮은 약 3만9천명 증가한 160만명 수준으로 1999년 156만명보다는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 건설부분에서의 고용 약 200만명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건설인력의 실업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 [7] 정책적 시사점 및 대책방안

2000년 상반기의 건설경기동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가 공공건설투자의 주도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건설시장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IMF 이후에도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건설관련제도도 크게 변화하여 건설산업체의 수주여건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는 지금부터 건설산업은 IMF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는 건설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정부의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경제여건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2000년 하반기의 건설경기 대책은 민간건설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건설경기를 주도하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조세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지방도시의 건축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입지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장 등을 건축할 경우에도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민간건설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도 시급히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산업의 특징상 금융여건에 따라 건설경기의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차원에서의 대책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은 고용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지정책차원에서 건설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건설공공근로사업을 확대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대책으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어 건설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2000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은 2000년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1/4분기까지의 거시경제동향 자료와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0년 6월까지의 건축허가(선행지표)를 토대로 전망한 것임